

2020 평택학 시민강좌 자료집

이석영 육형제와 신흥무관학교

2020 평택학 시민강좌 자료집

이석영 육형제와 신흥무관학교



(우)17901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655.2002 Fax 031.654.8807
홈페이지 <http://www.ptmunhwa.or.kr/>



2020 평택학 시민강좌 자료집

이석영 육형제와 신흥무관학교



목차

이석영의 가계(家系)와 평택 -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07
이석영의 만주지역 이주와 신흥무관학교 - 성주현/평택박물관연구소장	19
고난의 땅 만주에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신흥무관학교 - 김주용/원광대학교 교수	39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의 암호 - 이은영/성균관대학교 선임연구원	51

이석영의 가계(家系)와 평택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

이석영의 가계(家系)와 평택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경주이씨의 평택 정착 과정
3. 크게 번성한 백사 이항복의 후손들
4. 모든 재산을 독립군자금으로 내놓은 이석영
5.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국권상실의 위기에서 보여준 경주이씨 백사공파 가문의 독립운동은 만인의 귀감이다. 이석영, 이회영을 비롯한 6형제는 일제가 국권을 강탈하자 삼한갑족이라는 특권을 버리고 억만금의 재산을 처분하여 서간도 삼원포로 망명했으며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가족 모두가 독립투쟁에 헌신했다.

그동안 경주이씨 가문의 근거지로는 서울시 중구 저동이 주목받았고, 재산과 관련해서는 이유원이 소유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의 집과 토지가 관심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본거지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일대이며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경기도 장단에도 유허가 존재한다. 또한 이석영이 처분했던 억만금의 독립군자금 조성에도 서울 중구 저동의 저택과 남양주 전장(田莊) 뿐 아니라

평택지역의 재산도 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여러 문헌을 통해 확인된다.

경주 이씨는 지금도 진위면 봉남3리와 마산2리 일대에 세거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빛나는 독립운동의 지분은 평택지역도 갖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평택시가 경주 이씨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선양해야 하며, 평택시민이 이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2. 경주이씨의 평택 정착 과정

평택지역에 세거(世居)하는 경주이씨는 상서공파 계열이다. 경주이씨는 조선후기 소론(小論) 계통으로 분류되지만 문과급제자 176명을 배출했고 수십 명의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명문가 가운데 명문가다. 상서공파 중에는 ‘오신집’을 최고 명문가로 꼽는다. 그 가운데서도 백사 이항복의 후손들인 ‘백사집’이 가장 번창했다. 백사집은 백사공파 또는 백사문충공파로 분류된다. 백사공파는 조선후기에만 영의정 4명, 좌의정 2명, 대제학 2명을 배출했고 증직으로 정승에 오른 사람까지 11명이나 되어 ‘상신록(정승 10명 이상을 배출한 가문에서 만드는 책)’을 만들었다.

상서공파의 파조(派祖)는 고려 때 상서 벼슬을 했던 이과다. 평택지역에는 이과의 손자인 이승이다. 평택시 진위면 동천1리 경주이씨 상서공파 묘역에도 전농판관을 지낸 이승부터(이과와 이원보는 제단만 있음) 묘가 조성되었으며 묘역 입구의 유래비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이승(李昇)은 대제학을 지낸 최양의 딸과 혼인했고 세조의 장인 윤번과도 사돈 간이었다. 이승의 아들은 동천1리 북쪽 산기슭에 묘가 있는 공조참판 이연손이다.

이연손(? ~1463)의 아들은 승손이며 이승손의 아들은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승수다. 이승수의 아들로 안동판관을 지낸 이성무¹⁾는 모두 여섯 아들을 두었다. 이성무의 여섯 아들이 평택시 진위면 일대와 경기도 포천 등으로 흩어져 터전을 일궜다. 그 가운데

1) 이성무의 묘는 진위면 마산2리 수촌에 있다. 묘비는 세월이 지나며 실전됐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되찾아 보니 온통 검은빛이어서 ‘거먹비 산소’라고 부른다.

셋째 아들이 이예신이다.

이예신(1466~1536)은 경기도 포천에 정착했다. 가문에 전해오기로는 포천의 객씨 덕에 훈장으로 갔다가 그곳에 눌러앉았다고 한다. 이예신의 슬하에는 몽윤과 몽량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중 둘째 몽량의 넷째 아들이 백사 이항복(1556~1618)이다. 그러면 이들의 계보를 정리해보자.

표1) 경주 이씨 상서공파 계보

(17세)이 과(李 邁) : 상서, 상서공파의 파조(派祖)
(18세)이원보(李元普) : 지주사
(19세)이 승(李 昇) : 전농판관
(20세)이연손(李延孫) : 공조참판
(21세)이승수(李崇壽) : 첨지중추부사
(22세)이성무(李成茂) : 안동판관 - ①인신(仁臣) ②의신(義臣) ③예신(禮臣) ④지신(智臣) ⑤신신(信臣) ⑥정신(貞臣)
(23세-③)이예신(李禮臣) : 진사 - ①몽윤(夢尹) ②몽량(夢亮)
(24세-②)이몽량(李夢亮) : 우참찬, 정헌공 - ①운복(雲福) ②산복(山福) ③송복(松福) ④항복(恒福) ⑤경복(鏡福) ⑥다복(多福)
(25세-④)이항복(李恒福) : 영의정, 문충공, 권율의 사위 - ①성남(星男) ②정남(井男) ③규남(奎男) ④기남(箕男)

※출전 : 경주 이씨 중앙화수회 홈페이지

3. 크게 번성한 백사 이항복의 후손들

이항복은 권율의 딸과 결혼해서 성남과 정남, 규남, 기남 네 아들을 두었다. 이 가운데 이조판서를 지낸 이성남은 공주 목사를 지낸 이시현을 아들로 두었고, 이시현의

아들은 홍주 목사를 지낸 이세구다. 이세구의 아들은 경종, 영조 연간에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에 오른 윤곡 이광좌(1674~1740)다. 이광좌는 진위면 동천리 경주 이씨 상서공파 묘역을 정비했고 죽은 뒤에는 무봉산 기슭 이연손의 묘 옆에 묻혔다.

둘째 이정남의 아들은 이조참판을 지낸 이시술이다. 이시술은 세장과 세필을 아들로 두었다. 이 가운데 송시열의 문인이었던 이세필(1642~1718)은 학행(學行)으로 관직에 진출하여 형조좌랑, 용인현감, 진위현령을 거쳐 삭녕군수를 지냈다. 1674년(현종 15) 갑인예송으로 송시열(宋時烈)이 삭직 당하자 적극 옹호하다가 5년 간 유배당하기도 했다. 1689년 기사환국 때는 이이(李珥)와 성혼(成渾)의 문묘출향(文廟黜享)에 반대했으며 이때 관직을 버리고 진위(振威)로 낙향했다.

이세필이 처음 정착한 곳은 진위면 봉남1리 향교말이다. 그러다가 봉남3리 아곡마을로 이거(移居)했다. 아곡마을에 정착한 뒤로는 1694년 갑술옥사 뒤 김제군수, 사복시정, 장악원정 등으로 잠시 출사한 뒤로는 나라에서 불렸어도 응하지 않고 학문연구에만 전념했다. 학문적으로는 『대학』을 깊이 공부했으며 예학(禮學)을 깊이 연구했다.

이세필은 태좌, 정좌, 형좌, 경좌 네 아들을 두었다. 그 가운데 큰아들 태좌와 손자 종성이 크게 출세했다. 이태좌(1660~1739)는 39세 늦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지만 삼사의 요직과 6조의 판서를 두루 거쳐 영조 초에는 좌의정에 올랐다. 인물됨이 훌륭해서 죽은 뒤에 ‘사람됨이 중후하고 근신하며 남과 거스르지 않아서 세간의 평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좌의 장남은 종성(1692~1759)이다. 이종성은 어려서 이광좌에게 배웠으며 문재(文才)가 뛰어났다. 1727년 증광 별시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갔고 삼사와 6조의 요직을 두루 거쳐 1752년(영조28) 영의정에 올랐다. 죽은 뒤에는 ‘문사(文詞)가 섬민(瞻敏)하고 강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유원이 지은 신도비문에는 중구 회동(회화동)에서 죽었으며 풍덕 작곡(장단 부근)에 장사지냈다고 되어 있어 이종성 때에 경기도 장단에도 세거지가 마련됐음을 알게 한다.

박문수(1691~1756)는 이태좌의 외조카다. 외가에서 태어나 어려서 이종성과 함께 이태좌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1723년 증광 문과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갔고 1727년 영남안집어사로 파견되어 부정한 관리들을 적발했다. 그 뒤 경상도 관찰사, 대사성, 도승지를 거쳐 영남감진어사, 북조진휼사로 나가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했으며, 호조참판, 병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를 지냈다. 호조판서로 있을 때는 대궐 수리를 어느 관료보다 잘했다는 칭찬을 받았다.

이밖에도 나머지 후손들도 모두 과거로 관직에 진출했으며, 정승, 판서를 지낸 사람이 많다.

표2) 구천 이세필의 후손들

- (28세)이세필(李世弼) : 형조참판, 호 구천
 - (29세-①)이태좌(李台佐) : 좌의정, 충정공, 호 아곡
 - (30세-①)이종성(李宗城) : 영의정, 문충공, 호 오천
 - (31세)이경륜(李敬倫) : 대사간, 황해도관찰사
 - (32세)이정규(李廷奎) : 대사간, 강원도관찰사
 - (33세)이계선(李啓善) : 사헌부 집의
 - (34세)이유승(李裕承) : 우찬성, ①건영(健榮) ②석영(石榮, 이유원에게 출계) ③철영(哲榮) ④회영(會榮) ⑤시영(始榮) ⑥호영(護榮)
- (29세-②)이정좌(李鼎佐)
 - (30세)이종주(李宗周)
 - (31세)이경관(李敬寬) : 생부 이종철(李宗喆)
 - (32세)이석규(李錫奎) : 이조판서, 효정공, 거주지 진위
 - (33세)이계조(李啓朝) : 이조판서, 문정공, 호 동천, 거주지 한성
 - (34세)이유원(李裕元) : 영의정, 충문공
 - (35세)이석영(생부 이유승), 이수영

※참조: 경주 이씨 중앙화수회 홈페이지 및 민족문화대백과사전, 문과방목

4. 모든 재산을 독립군자금으로 내놓은 이석영

이세필의 둘째 아들은 이정좌(李鼎佐, 1663~1726)다. 이정좌는 과거에 수차례 낙방한 뒤 문음(文蔭)으로 관직에 나갔다. 사직서 참봉을 시작으로 금천군수, 선산부사를 지냈고 죽은 뒤에는 영의정에 추증됐다. 진위면 봉남3리 아곡에서 옆 마을인 가곡1리 가오실로 분동(分洞)한 것도 이정좌의 생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정좌는 당대보다는 후손들이 크게 출세했다. 이정좌의 증손은 이석규고 현손은 이계조다. 두 사람은 문과에 급제한 뒤 연달아 판서에 올랐고 5대손 이유원은 고종 때 영의정에 올랐다.

이정좌의 현손 굴산 이유원(1814~1888)은 25세에 문과(文科)에 급제했으며 병조참의, 의주부윤, 함경도 관찰사, 도승지를 거쳐 흥선대원군 집권 후 좌의정에 올랐다. 청나라에 사신으로 오가며 사무역(私貿易)으로 억만금의 재산을 일궈 남양주 일대에 수백만 평의 장토를 마련했으며 이것으로 흥선대원군 집권과정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다고 전한다. 그러다가 흥선대원군과의 정치적 갈등으로 부침을 겪었으며 1873년 고종이 친정(親政)하면서 영의정에 올랐다.

이유원은 개항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주장했으며 외교적 수완이 좋았다. 세자책봉 문제를 놓고 이면에서 일본과 청나라를 조정했으며, 주청사로 청나라를 방문해서는 세자책봉문제를 공작했다.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의 서한을 받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열강과 통상을 추진했고 임오군란(1882년) 뒤에는 일본과 제물포조약을 체결했다.

이유원의 서울 집은 중구 정동에 있었지만 평택시 진위군 가곡리와 강하게 연결되었다. 판서를 지낸 조부 이석규가 가곡리에 거주했고 부친 이계조도 본거지를 진위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유원도 가문과 본거지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그가 이세필의 신도비와 이종성의 신도비를 다시 세운 것이라든가 본향인 진위면 가곡1리 가오실의 지명을 빌려 남양주 별서(別墅)를 ‘가오실’로 짓고 가오실대감으로 불렸던

것에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유원의 남양주 재산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 해방 이후 이석영의 재산을 매입한 백상규의 마름이었던 화도읍 가곡리 주민 이효구(남, 1935년생)는 700정보(210만평 이상)였다고 주장했다. 이것에 99칸 집이었다고 전하는 별서가 있었다. 이유원은 말년에 별서에 머물며 서울을 오가면서 관직생활을 했다고 전한다.

이것과 함께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도 조상들에게 상속받은 재산이 있었다. 그 규모는 정확하지 않지만 가곡1리 일대의 전답과 임야가 모두 이유원의 소유였다고 전한다. 전 농림부 차관을 지낸 이창우는 이석영이 재산을 모두 팔아 만주로 망명을 떠날 때 진위면 가곡1리의 땅 5만여 평도 매각되었다고 주장했다. 가곡1리의 토호 제주 고씨들도 ‘자신들의 조상들이 150여 년 전 용인 죽전에 거주하다가 안성 친척에게 의탁하러 가던 중 경주 이씨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청지기 노릇을 했는데, 경술국치(1910) 때쯤 경주 이씨가 갑자기 몰락하여 모든 재산을 고씨에게 팔고 마을을 떠났다’고 말했다.²⁾ 1912년 경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도 가곡1리 일대의 땅이 고씨 소유로 넘어갔고 재실과 묘역 그리고 토지 일부만 이유원의 서자 이호영 소유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후손 이창우가 말하는 5만평 매각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유승의 아들인 이석영이 13촌간인 이유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굴산 이유원(1814~1888)은 정실부인에게서 수영(1858~1880)과 두 딸을 낳았고 측실에게서 호영과 표영 형제를 얻었다. 이수영은 17세에 대과에 급제하여 23세에 정3품 이조참의에 제수받았을 만큼 출중했지만 어려서부터 풍증이 있어 아이를 낳지 못했고 1880년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이유원은 친척 중에서 양손(養孫)을 맞아 대를 잇게 했다. 하지만 큰 변고가 발생했다. 어렵게 맞아들인 양손(養孫)과 며느리(이수영의 처)가 음행(淫行)을 저지른 것이다. 크게 낙담한 이유원은 임금의 허락을 받아 파양(罷養)하고 새로 양자(養子)를 찾았다.

2) · 고수웅(남, 1938년생), 2008년 2월 23일 인터뷰

그 때 이유원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12촌이었던 이유승의 둘째 이석영이었다. 당시 이석영은 31세의 장년이었고 대과 급제를 눈앞에 둔 촉망받는 인물이었다. 이유승은 완강히 거절했다. 그러자 이유원은 고종에게 하소연하며 해결을 부탁했고, 결국 고종의 중재로 양자로 입적했다. 입양 과정에서 이유원은 고종 앞에서 약속을 했다. 자신은 구천 이세필의 예론(禮論)에 따라 비록 양자라고 할지라도 나이순에 따라 장자와 차자의 서열을 정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 때의 약속에 따라 나이 많았던 이석영이 장자(長子)가 되고 친자였던 이수영은 차자(次子)가 되었으며, 이유원의 사후 소작료 1만여 석에 달하는 남양주의 재산과 진위면 가곡리의 유산 대부분이 이석영에게 상속되었다.

5. 맺음말

이유원의 양자(養子)로 들어간 이석영은 그 해 문과에 급제하고 관직에 진출했다. 성리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듯하며, 성품이 진중하고 진실되었다. 벼슬길도 탄탄대로를 걸어 승지에 임명되어 고종을 최측근에서 보필하기도 했으며 종2품 참판(차관급)까지 올랐다. 이석영은 보수적 유학자였지만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강직한 태도를 가졌으며, 가장 신뢰했던 동생 이회영의 호방하고 개혁적인 사상에 감화 받아 세계관의 변화도 경험했다.

1894년 갑오개혁 뒤 관직에서 물러난 이석영은 광무개혁 후 고종은 연이은 부름에도 나아가지 않았다. 이석영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은 것은 동생 이회영의 권유도 영향을 미쳤지만 개화와 수구세력이 갈등하는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석영은 ‘기득권에 얽매어 나라의 발전과 개혁을 하지 못하는 수구세력을 비판했으며, 개화에 급급한 개화파도 비판했다. 그래서 벼슬살이보다 “온 세계의 지식을 구하고 동지를 모아, 기울어가는 국운을 바로잡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출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겼다.

이석영의 남산 흥업정은 이회영을 비롯한 개혁적 인사들의 회합장소였다. 이곳에서 이회영은 “이제 제왕의 시대는 갔고 사민 자유평등의 시대가 왔으니, 우리의 전통과 습성을 생각하면서 시대 조류에 따라 새나라 건설 이론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회영의 생각과 실천도 이석영의 세계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동력이었을 것이다.

1910년 이석영은 동생 이회영의 제안에 따라 당시 돈으로 43만원에 달하는 많은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을 떠났다. 남양주의 재산만도 6천석에 달했고 서울 정동의 저택과 평택지역의 재산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일 것이다. 한다. 후자는 43만원은 지금 돈으로 600억이라는 사람도 있고 2,000~3,000억이라는 주장도 있다. 쌀 6천석을 지금 시세인 쌀 1가마(80kg) 가격인 20만원으로 곱해도 1,200억이고, 당시 쌀의 가치가 지금보다 월등히 높았으므로 대략 3천억쯤 된다고 해도 무리는 없다.

어쨌든 이석영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독립군자금으로 선뜻 내놨다. 그 돈이 씨앗이 되어 서간도 삼원포에 경학사가 창립되고, 신흥무관학교(신흥강습소)가 설립됐으며, 만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와 동포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었다.

이석영의 만주지역 이주와 신흥무관학교

성 주 현

평택박물관연구소장

이석영의 만주지역 이주와 신흥무관학교

성주현/평택박물관연구소장

목차

1. 머리말
2. 이석영의 만주 이주
3. 이석영과 신흥무관학교
4. 맺음말

1. 머리말

“1910.12월 일제의 강제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되자 애국단체인 尙洞靑年會의 우국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1907년 新民會를 비밀조직하고 독립운동자 양성과 독립기지를 국외에서 개척하기로 합의된 바에 따라 6형제 50여 가족이 入滿하여 柳河縣 三源堡에 정착하고 耕學社와 新興講習所를 설치 독립군 장교 양성과 국권 회복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家産 6,000여 석을 투입하여 1910년대 초기의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사실이 확인됨.”¹⁾

위의 인용문은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에 소개하고 있는 이석영의 독립운동 공적

1)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홈페이지(<http://e-gonghun.mpva.go.kr/>)

개요의 내용이다.²⁾ 이에 의하면 이석영은 제국일본의 강점 이후 만주로 이주하여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설립에 참여하였으며, 독립운동 자금으로 상당한 재산을 기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석영은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이회영 6형제’의 둘째이지만, 형제 중 이회영과 이시영에 비하여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더욱이 이석영이 평택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회영 6형제’는 한국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집안으로 칭송되고 있다. 이석영은 이회영 6형제 중 둘째로 본관은 경주이다. 이석영을 포함한 이회영 6형제는 평택에서 직접 거주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형제의 본관인 경주이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택시 진위면 동천1리 마을 입구에는 ‘경주이씨 상서공파 세장지’가 있다. 세장지 위쪽에는 상서공파의 파조 李科의 제단과 후손들의 묘역이 있으며, 서쪽에는 재실 동천재가 있다. 인근의 무봉산 서쪽마을 진위면 가곡1리 嘉畚室 입구에도 ‘慶州李氏 阡’³⁾이라는 표석이 있었다.⁴⁾ 경주이씨가 평택에서 세거하기 시작한 것은 백사 이항복의 증손 이세필부터이다.

이석영이 양자로 입적한 이유원은 ‘가오실 대신’⁵⁾으로 불린 바 있는데, 이는 평택 진위면 가곡1리의 가오실 마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면, 이석영 또한 ‘가오실’ 내지 ‘평택’과 전혀 인연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석영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할 때 평택의 경주이씨 문중의 대지도 상당 부분 포함된

2) 이석영에 대한 연구는 허성관, 「이석영 선생의 독립투쟁과 고뇌」라는 글을 통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 글은 광복 70주년 기념 경기도 학술토론회 제1차 ‘망국의 길 그리고 망명 독립운동과 이석영 선생’(2015년 5월 13일)에서 발표된 논문이다.

3) 이 표지석은 도로공사로 현재 진위면 봉남3리 이세필의 묘 아래로 옮겨져 있다.

4) 「기획특집-100년의 함성과 만석꾼의 꿈을 찾다② 경주이씨 이석영·이회영 집안의 뿌리는 평택」, 『평택시사신문』 1919년 3월 13일.

5) 「영석 이석영씨 상해 객장에서 영면」, 『동아일보』 1934년 2월 28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3.1운동 1백주년을 맞아 평택시사신문사에서 「100년의 함성과 만석꾼의 꿈을 찾다」라는 특별기획으로 연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평택과 직접 연고는 없지만 이석영의 본관인 ‘경주이씨의 세장지’, 그리고 ‘가오실’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만주에서의 이석영의 삶에 대하여 추적해 보고자 한다.

2. 이석영의 만주 이주

이석영은 1855년 저동 중신 이유승의 둘째로 태어났으나 영의정을 지낸 가오실 대신 이유원에게 양자로 입계하였다.⁶⁾ 호는 영석(潁石), 본관은 경주이다. 양자로 입계하지 전까지 이석영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30세가 되면 1885년 가오실 대신 이유원의 양자로 입계하였는데, 이는 당시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석영이 양자로 입적하게 배경은 이유원의 아들 이수영이 1875년 별시 문과에 급제한 후 사망하였기 때문이다.⁷⁾ 당시 80세였던 이유원은 제사를 맡길만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관념에 따라 이유원은 아들 사후 10년 후인 1885년 1월 10일 인척인 이유승의 둘째인 이석영을 양자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⁸⁾ 이유원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영석 이석영씨 상해 객장에서 영면」, 『동아일보』 1934년 2월 28일; 「상해 법조계서 이석영옹 장서」, 『조선중앙일보』 1934년 3월 1일.

7) 李秀榮은 풍증이 있었다. 1875년 별시과에 급제하였으며, 待敎를 지내고 세상을 떠났다.(『매천야록』 1권 上, ‘이유원의 파양’)

8) 이유원은 양손이 있었지만 파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매천야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유원은 아들 사후 양손을 맞이하였으나 그의 나이가 이수영의 처와 네다섯 살 차이밖에 안 되어 모자가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에 이유원은 고종에게 아뢰기를, “신의 손자가 그의 어머니와 간통하였으니 양손을 파기해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신은 운수가 두텁지 못하여 아직 제사를 맡길 만한 아들이 없는데 나이는 문득 80세가 가까워 오고 있으니 통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2촌 아우인 전(前) 참판(參判) 이유승(李裕承)의 둘째 아들 이석영(李石榮)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 뒷일을 맡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윤리상의 큰 문제입니다. 국조(國朝)의 진신(縉紳) 간에 이미 시행한 예(禮)를 상고하여 보니, 사람을 골라서 지정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것은 비단 옛날에 많이 있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중략)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특별히 불쌍하게 여기는 은택을 베푸시어 자식이 없는 신으로 하여금 자식을 두게 하고 대가 끊어진 것을 이어서 망하지 않게 하여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⁹⁾

즉 이유원은 12촌 아우인 이유승의 둘째 아들인 이석영을 아들로 삼아 제사를 맡기면서 대를 잇게 하였다.¹⁰⁾ 이유원의 양자로 입적한 이석영은 1885년 9월 증광시 문과에 급제¹¹⁾한 후 두 차례 한림의 권점을 받았으며¹²⁾ 1887년 홍문록, 도당록에 추천되었다.¹³⁾ 또한 이해 대왕대비 팔순을 축하하는 경과정시 문과의 시관을 맡기도 하였다.¹⁴⁾

9) ·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1월 10일.

10) · 상소에 대해 고종은 “대를 이은 양자의 나이가 친자식보다 많은 경우에 종(宗)으로 삼고 형으로 삼는 것은 참작하여 변통하고 권도(權道)를 취하는 도리에 진실로 부합되는 것이니, 선유(先儒)와 선정(先正)들은 이미 정론이 있었다. 더구나 경의 선조가 쓴 《예론》이 명백한 증거가 되는 만큼 나이순으로 대를 잇는 계통을 정하는 문제는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

11) · 『고종실록』 22권, 고종 22년 9월 15일.

12) · 『고종실록』 23권, 고종 23년 3월 24일; 고종 23년 10월 10일.

13) · 『고종실록』 24권, 고종 24년 7월 23일.

14) · 『한성주보』 1887년 4월 11일.

1891년 동부승지,¹⁵⁾ 1903년 비서원승,¹⁶⁾ 1904년 장례원 소경¹⁷⁾ 등을 역임하였다. 이외에도 정언, 수찬 등도 역임하였는데, 정언과 수찬은 청요직으로 인품이 강직하고 학문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관직으로는 종2품, 칙임관 4등까지 올랐으나 크게 이름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그가 관직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조선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정세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관직에 무의하게 보내다가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관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즉 1904년 이후 관직에 그의 이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다. 『기려수필』에서는 “公無意進就 遂辭歸不出世”라고 하여 벼슬에 크게 나아갈 뜻이 없어 그만두었다고 한 바 있다.¹⁹⁾ 이후 한동안 활동을 보이지 않던 이석영은 규장각 제학 조정희의 장례에 호상인으로 이름을 올렸다.²⁰⁾ 그리고 이해 민영휘와 한강에 있는 정자 천일정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하였다.²¹⁾ 그러나 이 천일정사건은 패소하고 말았다.²²⁾

한편 이 시기 이석영은 아들 이규준을 신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처음에는 거부하였지만, 곧바로 이를 수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생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이 남김 『서간도 시종기』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15) · 『고종실록』 28권, 고종 28년 8월 29일,

16) ·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11월 8일.

17) · 『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4월 29일.

18) · 허성관, 앞의 논문, 73쪽.

19) · 『기려수필』, 「이석영」(19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20) · 『황성신문』 1908년 1월 8일.

21) · 『황성신문』 1908년 12월 11일.

22) · 『황성신문』 1909년 4월 10일.

무신년은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이 되니 얼마나 완고하리오. 학교도 희소하고 남자 아들은 한문이나 가르치고 재력이 넉넉한 가정은 선생이나 두고 글을 가르치는 시대라. 우당장(이회영-필자)이 규룡, 규학, 규봉, 규면, 규훈 다섯 종형제를 식발해 입학시켰더니 둘째 영감(이석영-필자)께서 아우님을 꾸짖으셨다. 우당장은 웃으시면서 “형님, 시대가 시시로 변천하니 규준도 입학시켜서 바빠 가르쳐서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처럼 부강해야지요” 영감께서는 아우님 말씀을 신용을 잘하는지라. 모든 친구들에게도 권하여 자녀들을 입학시키는 사람이 다수이러라.²³⁾

이은숙의 회고에 의하면, 이석영은 상당히 완고한 인물이었다. 당시 애국계몽으로 근대적 신식학교가 설립되어 근대학문을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지만, 이석영은 이를 수용하는데 반발하는 입장이었다. 동생 이회영이 자식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형인 이석영의 아들 이규준에게도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석영은 신학문 수용을 처음에는 반발하였지만, 동생 이회영의 설명을 듣고 한 후 이내 이를 인정하고 아들을 신학문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이는 이석영이 본질적으로는 보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지만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줄 아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 8월 29일 제국일본에 강점당한 이후 이석영은 독자적으로 민족운동에 적극 나서지는 않았다. 이는 그의 과묵하고 보수적인 성격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동생 이회영이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그의 성격이 때로는 과단성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생 이회영²⁴⁾은 1907년 4월 초 신민회에 가담하였으며, 상동청년학원 학감으로

23) · 이은숙, 『서간도 시종기』(번역본), 일조각, 2017, 53쪽.

24) · 이회영이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이호룡, 「이회영의 아나키스트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삼웅, 『이회영

근무하면서 전덕기, 김진호, 이동녕 등과 함께 비밀독립운동을 준비하였다.²⁵⁾ 1909년 봄 이회영 등 신민회 간부는 양기탁의 집에서 비밀회의를 갖고 서간도 지역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무관학교를 설치하기로 하였다.²⁶⁾ 이어 1910년 7월 보름쯤 이동녕, 장유순, 이관직 등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 일대를 시찰하고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 지역을 독립운동기지로 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환인현 횡도천을 임시 거처를 정하고 먼저 이동녕의 친족 이병삼 가족을 이주시켰다.

서간도 시찰을 마친 이회영은 이석영 등 6형제를 소집하여 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만주로 이주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비밀리에 전답과 가옥 부동산을 방매하였다. 특히 이석영은 남양주와 평택 일대의 토지 등 재산을 처분하여 민족운동 자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숙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 시숙 영석장은 우당 둘째 종씨인데, 백부 이유원 댁으로 양자 가셨다. 양가의 재산을 가지고 생가 아우들과 뜻이 합하셔서 만여 석 재산과 가옥을 모두 방매하여²⁷⁾

이석영은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방매하여 이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흔쾌히 제공하였다. 『매천야록』에 의하면 이유원은 양주에서 서울로 오는데 남의 땅을 밟지 않아도 될 만큼 광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였다. 더욱이 경주이씨 문중에 있는 평택의 땅도 일부 처분하였다. 당시 기부한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방매한 자금이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6형제가 마련한 자금이 모두 40여만

평전』, 책보세, 2011; 이덕일, 『이회영과 젊은 그들』, 역사와아침, 2009 등을 참조할 것.

25) · 이은숙, 앞의 책, 53쪽.

26) · 박환, 「이회영의 생애와 민족운동」, 『나라사랑』 104, 외솔회, 2002, 27쪽.

27) · 이은숙, 앞의 책, 65쪽.

원이었으며 대략 6백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주 이주의 준비를 마친 이석영은 서울을 출발, 1910년 12월 30일 압록강을 건넜다. 이어 이회영 일가도 신의주에 도착하여 몇 시간을 머물다가 새벽에 압록강을 건너 안동현에 도착하였다. 먼저 와 있던 이석영이 이회영 일가를 맞이하였다. 이곳에서 합류한 이석영, 이회영 6형제 일가는 신해년 새해를 맞았으며 1917년 1월 9일 임시 거처인 횡도천으로 향하였다. 당시를 이은숙은 아래와 같이 회고하였다.

조국을 이별한 지 일망이 되는데 무정한 광음은 송구영신의 신해년이 되었다. 정월 초 아흐렛날에 임시로 정한 횡도촌으로 향하였다. 6형제 식구와 둘째 댁, 출가여식의 서랑까지 데리고 와 마차 10여 대를 얻어 일시에 떠났다.

안동현에서 횡도천으로 떠난 것은 입춘이 지난 시기였다. 험난한 길을 재촉하는 이회영의 따라 이석영은 횡도천으로 향하였다. 당시 고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갈수록 첩첩산중에 천봉만학은 하늘에 닿은 것 같고 기암괴석 보본의 칼날 같은 사이에 쌓이고 쌓인 백설이 은세계를 이루었다. 험준한 준령이 아니면 강판 얼음이 바위 같이 깔린 데를 마차가 어찌나 기차 같이 빠른지 그중에 채찍을 치면 더욱 화살 같이 간다.²⁸⁾

7,8일 만에 횡도천에 도착한 이석영은 이곳에서 며칠을 보낸 후 가솔과 함께 이회영의 인솔로 독립운동기지로 정해 놓은 유하현 삼원보로 갔다. 삼원보 일대에는 약 8백호 정도의 한인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²⁹⁾

28) · 이은숙, 앞의 책, 71쪽.

29) · 「三源浦 合泥河地方의 狀況에 관한 건」, 朝憲機 제259호, 1918년 5월 4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이처럼 서울을 떠나 만주로 향하는 망명의 길은 이석영에게는 낯선 삶이었으며 고난의 시작이었다. 그동안 안락한 삶을 누려왔던 이석영에게는 안동현에서 횡도천으로 가는 길이 훗날 상해 객장에서 영면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민족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3. 이석영과 신흥무관학교

이석영이 이회영과 함께 먼저 삼원보에 온 것은 무엇보다도 독립운동 기지 마련 때문이었다. “장구히 유지도 하고 우리 목적지를 정하여 무관학교를 세워 군사양성이 더욱 급하다”고 하였듯이,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관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가 급선무였다. 삼원보에는 이석영, 이회영 일가뿐만 아니라 이석룡, 이동녕, 김창환, 주진수, 윤기섭 등이 있었다.³⁰⁾ 이들은 우선 독립운동의 기반인 자치기관을 조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11년 4월 추가가 대고산에서 노천 군중대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5개 조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민단적 자치기관의 성격을 띤 경학사를 조직할 것

둘째, 전투적인 도의에 입각한 질서와 풍기를 확립할 것

셋째, 개농주의(皆農主義)에 입각한 생계 방도를 세울 것

넷째, 학교를 설립, 주경야독의 신념을 고취할 것

다섯째, 기성 군인과 군관을 재훈련하여 기간 간부로 삼고, 애국 청년을 수용해 국가의 동량 인재를 육성한다.³¹⁾

30) · 채근식, 「경학사와 신흥학교」,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9, 47-49쪽; 서점영, 「우당 이회영의 민족운동」,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9쪽.

31) · 「경학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02989>)

이 결의에 따라 우선 민단적인 성격을 띤 자치기관으로 경학사³²⁾를 설립하였다. 설립에 앞서 이석영과 이회영 등 6형제와 이상룡, 이동녕, 장유순, 류인식, 이관직, 김창환, 윤기섭, 이규룡, 주진수, 장도순, 이장녕, 이규봉, 여준, 이상설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³³⁾ 설립 직후 임원으로는 사장에 이철영, 부사장에 이상룡, 서무에 김동삼과 이원일, 학무에 이광과 여준, 재무에 이휘림과 김자순, 조사에 황만영과 박건, 조직에 주진수와 김창무, 외무에 송덕규와 정선백 등이 선임되었다.

경학사의 설립 목적은 병농제(兵農制)를 채택하여 근로정신에 입각, 학술을 연마하고 구국 인재를 양성하여 무장항일투쟁을 전개하는 데 두었다. 그리하여 먼저 황무지를 개간하여 독립운동기지를 마련하고, 부설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설립, 구국 인재를 키우는 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경학사는 설립 목적에 따라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석영, 이회영, 이관직, 윤기섭, 이상룡 등이 발기하여 부설기관으로 1913년 5월 14일(음) 개교하였다.³⁴⁾

32) 경학사에 대해서는 박영석, 「일제하 재만한인의 독립운동과 민족의식-경학사의 설립 경위와 그 취지서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33, 한국사학회, 1991을 참조할 것.

33) 「경학사 취지서」.

34) 신흥강습소는 일반적으로 ‘신흥무관학교’로 알려져 있다. 설립 당시 명칭은 ‘신흥학교(新興塾)’였으나, ‘신흥강습소’, ‘신흥중학’이라고 불렸다.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는 기존연구는 이현희, 「신흥무관학교 연구」, 『동양학』 1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9;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 민족운동사 연구』, 일조각, 1991; 박환,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료와 졸업생들의 민족운동」, 『만주지역 한인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서중석,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 : 신흥무관학교와 백서농장에서의 독립군 양성」,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2000; 서중석, 「후기 新興武官學校」, 『역사학보』 169, 역사학회, 200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서중석, 「이회영의 교육운동과 독립군 양성」, 『나라사랑』 104, 외솔회, 2002 등이 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된 회고록으로는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그런데 한인 자치기관으로 설립한 경학사와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흥강습소 개교에 재정을 담당한 이는 이석영이었다.³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석영은 만주로 이주하기 전 자신의 전 재산을 방매 즉 처분한 바 있는데, 이 처분한 돈을 경학사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신흥강습소 개교와 운영 자금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신흥강습소와 관련하여 이은숙은 다음과 같이 『서간도 시종기』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영감께서는 항상 청년들의 학교가 없어 염려하시다가 토지를 사신 후에 급한 게 학교라. 춘분 후에는 학교 건설에 착수하게 선언하시고 지단(地團) 여러 천 평을 내놓으시고 시랑까지 부담하시고³⁶⁾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석영은 한인사회 청년들의 교육기관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으며, 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이 참고가 되고 있다.

35) 『韓民』 3호(1936년 5월 25일)에 의하면 이석영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관이 기록한 바 있다.
“李東寧氏를 西間島로 보내여 地點을 選擇하게 하였는데 이 使命을 맡은 李東寧氏는 庚戌年 7月(바로 合併되기 前)에 떠나 西間島 桓仁縣 等地를 視察하고 도라와 報告하였다. 이때는 벌써 合併이 된 뒤임으로 急急히 同志를 移住식히기로 決定하고 爲先 根據地設定에 要할 資金을 내 노를 사람을 求하였는데 同志 中 李會榮氏와 그의 季氏 李始榮氏의 紹介와 勸告로 그의 仲氏 李石榮氏의 同意를 얻었다. 그네 羣 兄弟 中에는 李石榮氏가 財産이 있었는데 그는 일즉 科擧하고 仕路에 단니다가 國事가 글러짐을 보고 掛冠隱退하야 鬱憤이 지내던 터임으로 곳 應諾하고 全 財産을 傾하여 7兄弟의 全 家族을 다리고 西間島로 移住하기로 決定하였다.”(『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5(한국국민당 I), 국사편찬위원회, 2009, 197쪽)

36) 이은숙, 앞의 책, 81쪽. 일본의 정보문서에도 이석영이 신흥강습소 설립에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李始榮一族ノ動靜ニ關スル件(諜報)」, 朝憲機第五一號, 大正八年二月一日, 祕受一二九六號;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청년들이 학교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운영 경비도 부담하였다. 이러한 이석영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석영은 신흥강습소의 교주가 되었다.³⁷⁾

이석영은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운영 경비 외에도 당시 함께 민족운동에 투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 즉 “여러 형제분은 자리를 못 잡은 모모 동지들께도 5칸 방자에 1년 지낼 땅과 1년 농사지를 시랑까지도 주어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외의 농군 방청으로 조선서 땅 사고 소작 주면 가을에 도조 가져오듯 하는 건 외방청이고, 내방청은 일꾼 두고 자농하면 일꾼 식구는 다 먹이고 가을에 3분의 1은 일꾼의 샅용으로 주는 것이니, 우리 동포를 구하는 것이다. 세상에 우리 시속 같은 분은 금세에 없으신 분이지만 어느 누가 알리오”³⁸⁾라고 하여, 한인사회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이석영의 역할은 안정된 한인사회를 기반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삼원보 추가가에 설립된 신흥강습소는 1912년 6월 통화현 합니하로 이전하여 신흥중학으로 개칭하였으며, 1919년 3월 5일 유하현 고산자 대두자로 이전하여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⁹⁾ 그리고 이석영이 참여한 경학사는 1912년 부민단으로 계승되었다. 합니하에 이전하여 개교한 신흥중학 역시 이석영의

37) 이은숙, 앞의 책, 82쪽; 서중석, 「이회영의 교육운동과 독립군 양성」, 『나라사랑』 104, 91쪽.

38) 이은숙, 앞의 책, 81쪽.

39)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1911~1913)」, 『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지식산업사, 2001, 210쪽; 박영석,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0·3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63쪽;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 공보처, 1948, 52쪽. 학계에서는 채근식의 저술을 근거로 1919년 5월 3일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했다고 하지만, 사실 정확한 논거, 즉 신뢰할 만한 1차 사료를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회영은 ‘신흥무관학교’, 부인 이은숙은 ‘무관학교’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신흥무관학교’라고 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후원이 절대적이었다. 원병상이 남긴 <신흥무관학교>에 의하면, 신흥중학 교사 건축 과정에서 이석영이 재정을 부담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1913년 봄에 학교가 이전된 뒤 황림 초원에 수만 평의 연병장과 수십 간의 내무실 내부 공사는 전부 생도들 손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삽과 괭이로 고원 지대를 평지로 만들어야 했고, 내왕 20리나 되는 좁은 산길을 오가면서 험한 산턱 돌산을 파 어깨와 등으로 날라야만 하는 중노역이었지만, 우리는 힘 드는 줄을 몰랐고, 오히려 원기왕성하게 청년의 노래로 기백을 높이면서 진행시켰다. 이 교사 건축 공사에는 전기 이석영 선생의 재력과 생도들의 총력적인 노력 봉사가 절대적인 힘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 교사 앞 45도로 기울어진 경사 언덕 아래 인접되어 있는 이석영 선생 댁에서는 고국에서 단신 탈주해오는 돈 없는 생도들에게 다년간 침식 제공도 아끼지 않았고, 학교 유지에도 정신적 물질적으로 그 뜻이 지극히 크고 높았었다.

즉 합니하의 신흥중학은 이석영의 재정 후원과 학생들의 노력봉사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학교 유지에도 이석영의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그의 지원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국민당 기관지 『한민』에서도 「이석영의 공」이라는 글을 통해 신흥강습소의 설립 과정에서 이석영의 역할이 지대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西間島 移住의 先進者 - 其中에도 新興學校의 唯一한 功勞者가 李石榮 氏인 것을 아는 이가 매우 드문 듯하다. 그의 功을 可히 알만한 이들도 그의 功을 世上에 公布치 않는 것 같다. 그는 累巨萬의 財産 全部를 가져다가 移住同胞 接濟에와 新興學校 經營에 全部 蕩盡하고 말었다. 그는 本來 國內에서 累代 簪纓巨族으로 豪華로운 生活을 하다가 亡國의 恨을 품고 故國을 떠나 異域에 와서 財産 全部를 없시 하고

나종에는 지극히 困窮한 生活을 하면서도 一毫의 怨聲이나 後悔의 氣色이 없고 泰然하여 長者의 風이 있었을 뿐이다. 末年에 飢寒에 餓死하다가 2年 前 上海 一隅에서 無異於 굶어 도라가시다싶이 되신 이가 것처럼 功勞 만흔 李石榮 氏인 줄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는지? 또 今年 5月 11日 上海 그의 족하 집에서 亦是 可憐한 身勢로 도라가신 이가 그의 家長을 따라 西間島에 와서 榮貴하든 몸으로써 親手로 獨立軍의 밥을 지어 먹이고 옷을 지어 뉘이든 李石榮氏의 夫人인 것을 아는 이가 몇이나 되는가.⁴⁰⁾

위의 글은 이석영 사후 그에 대한 공적을 기리면서, 서간도 한인사회와 신흥강습소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였음을 밝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석영은 만주로 건너와 민족운동에 참여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인용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고국에서 단신 탈주해오는 돈 없는 생도들에게 다년간 침식 제공도 아끼지 않았고”라고 하여, 경제적 지원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한용운이 만주에 머물 때도 지원하기도 하였다.

만주를 오고 싶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지 생명이 위태하지 않은 법인데, 하루는 조선서 신사 같은 분이 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다정히 한다. 수작을 유하며 행동은 과히 수상치는 아니하나, 고생 없이 온 본이라 안심은 못했다. 하루는 그 분이 우당장께 자기가 회환하겠는데, 여비가 부족이라고 걱정을 하니, 둘째 영감께 여쭙어 30원을 주며 무사히 회환하라고 작별했다.⁴¹⁾

인용문의 ‘신사 같은 분’은 한용운으로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으로 서명하였는데,

40) 「이석영의 공」, 『한민』 3, 1936년 5월 25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35(한국국민당 I), 국사편찬위원회, 2009, 198쪽.

41) 이은숙, 앞의 책, 85~86쪽.

만주에 머물면서 이석영에게 신세를 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²⁾ 동생 이철영의 생일 때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추운데 어린 것 데리고 더 머물다 가라”⁴³⁾ 하고, 또 “둘째 댁에서 쌀도 보내주고 흑 옥종도 보내지만 어찌 이루 보내리오”⁴⁴⁾ “양식이 떨어지면 둘째 댁에서 자루강냉이 두 부대를 보낸다”⁴⁵⁾ 등 고된 망명생활의 친지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베풀었다.

이처럼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하던 이석영의 망명생활은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석영이 정착한 추가가는 삼원보에서 5기로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한촌이다. 삼원보는 지금도 조선족이 많이 생활하고 있어 조선족향으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서 이석영 등 일가는 3칸 구조의 집을 얻어 생활하였다. 추가가 역시 첩첩산중으로 농사는 주로 강냉이나 좁쌀, 콩, 팥을 재배하였으며, 쌀을 구하려면 2, 3백이 떨어져 있는 삼원보 시장에서야 구할 수 있었다. 쌀이 귀한 곳이다 보니 아이들끼리 ‘종다밥’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추가가의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현지 중국인들은 이석영·이회영 일가를 제국일본의 침략의 앞잡이로 오해하였다. 또한 1913년 10월 20일 마적에게 납치되기도 하였다. 납치당할 때 신흥강습소 학생 두 명도 같이 납치되었는데, ‘만주왕’이라는 호칭을 받고 무사히 돌아오기도 하였다.⁴⁶⁾ 이처럼 만주에서 고난의 망명생활은 1925년 천진으로 이거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42) 이은숙, 앞의 책, 84쪽.

43) 이은숙, 앞의 책, 94쪽.

44) 이은숙, 앞의 책, 97쪽.

45) 이은숙, 앞의 책, 101쪽.

46) 이은숙, 앞의 책, 95~96쪽. “만주인들은 영석장 존경하기를 ‘만주왕’이라고까지 명칭하였는데, 저의 나라가 문명치 못하여 도적들이 사면으로 횡행하여 영석장을 모셔갔다 하니, 저희 군대에서 이를 미안하게 생각하여 당황히 백여 명 군대가 출동하였다. 대장이 둘째 댁까지 와서 사과하고”

4. 맺음말

이상으로 이석영의 만주 이주과정과 만주에서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석영은 1855년 이유승의 둘째로 태어났지만, 늦은 나이인 30세에 인척 이유원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그가 입적하게 된 배경은 이유원의 양손이 파양됨에 따라 대를 잇고 제사를 받들기 위함이었다. 이유원은 당시 ‘조선의 10대 부자의 한 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재력가였다. 양자 입적 이후 과거에 급제한 이석영은 청요직 등을 역임하였지만,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보면서 관직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하였지만 동생 이회영이 민족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를 지원하는 한편 이회영 등 6형제의 결의에 따라 민족운동 대열에 참여하였다.

이석영은 제국일본의 강점 이후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이회영 등 6형제와 함께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이주하였고, 한인자치 단체인 경학사 조직과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 설립과 유지에 자신의 재산을 쾌척하였다.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 활동하는 민족운동가와 신흥강습소 학생들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11년 압록강을 건너 만주에 이주하여 1925년 중국 관내인 천진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만주에서의 망명생활은 이석영에게는 기존의 안락한 삶과는 전혀 다른 고난의 삶이었다. 그렇지만 그가 겪은 고난의 삶은 바로 민족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이석영은 무장투쟁 등 직접 민족운동에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정신적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공로로 이석영은 1991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애족장의 서훈을 받은 바 있다.

이석영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아직도 일천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가 남겨놓은 글이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한계이기도 하다. 또한 평택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이씨 세장지’와 ‘가오실’이라는 것이 평택과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음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그의 삶을 재조명하는 데 본 글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고난의 땅 만주에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신흥무관학교

김 주 용
원광대학교 교수

고난의 땅 만주에 새로운 학교가 열린다, 신흥무관학교

김주용/원광대학교 교수

목차

1. 서간도 망명자의 첫 학교로 가는 길
2. 만주지역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다
3. 학교문이 열린다
4. 우리들은 독립군
5. 청산리에서 빛을 발하다
6. 독립전쟁을 수행한 신흥무관학교

1. 서간도 망명자의 첫 학교로 가는 길

중국 요녕성 심양 타오시엔 국제공항에 내리면 만주벌판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바다로 치면 망망대해다. 차는 바로 심양 외곽으로 빠져 무순을 지나 5시간을 서쪽으로 더 달리면 유하현 삼원포를 만날 수 있다. 심양 공항에서 6시간을 가야하는 곳에 1911년 6월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마을 삼원포 추가가를 만날 수 있다. 오늘날에도 힘든 여정인데 100년 전에야 말해 무엇하리.

2. 만주지역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다

1910년대 북간도의 민족학교는 명동학교를 비롯하여 100개에 달할 정도로 불꽃처럼 전개되었다. 이처럼 진보적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간도지역은 항일운동의 인적 재배지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다. 학교 운영은 경비 문제, 중국 지방 정권의 방해공작 등 상당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족학교 운영이란 사실상 독립운동과 같은 움직임의 하나였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기지가 정착되기에 이른다. 북간도는 독립전쟁론을 구현시킬 독립운동기지의 터전을 굳혀 갔으며, 나자구의 동림학교(일명 나자구사관학교),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등이 그 결실로 나타났다. 나아가 1919년 3.13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것도 민족교육기관을 통해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였던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

다음으로 서간도라고 불린, 길림성 서남부와 요녕성 동부지역은 신흥무관학교로 대표되는 독립운동기지의 요람이었다. 이회영 6형제와 이동녕, 이상룡 등의 항일지사들은 1911년 초까지 삼원포 일대를 한국독립운동의 기지로 건설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를 중심으로 착수한 서간도의 독립운동기지화 경영은 경학사를 건설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림 1) 이회영

3. 학교문이 열린다

신흥강습소는 1911년 6월에 삼원포에 설립되었다. 신흥이란 신민회의 ‘신’자와 조국을 되찾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의미의 ‘흥’자를 합한 것이다. 학교보다 등급이 낮은 강습소로 시작한 것은 현지인들과 일본의 간섭을 의식해서이다. 추가로 지역의 교사가 협소하여 통화현 합니하로 본교를 이전하면서 신흥무관학교의 틀이 제대로 갖추어졌다.



그림 2) 합니하 신흥무관학교 터



그림 3) 신흥학우보

신흥무관학교는 본교를 통화현 합니하에 두고 고산자 등에도 분교를 설치하여 사관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중국 군관학교를 졸업한 교관들에 의하여 피 끓는 독립군 사관후보들이 배양되었던 것이다. 1920년 8월 무관학교가 안도현으로 이동하기까지 졸업생은 2,000여 명에 달했다.

4. 우리들은 독립군

신흥강습소 학생수는 약 40여명이었다. 이들은 국문, 수학, 외국어, 수신, 역사, 지리, 과학, 미술, 체육, 음악 등을 골고루 배웠다. 특히 군사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그림 4) 백서 농장

* 생도들의 하루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 ‘또-또-따’ 잠든 생도들의 귓전을 울리면 각 내무반 생도들은 일제히 일어나 신변환경을 정리하고 3분 이내에 복장을 단정히 하고 각반 치고 검사장에 뛰어 나가 인원 검사를 받은 다음 보건체조를 하였다. 눈바람이 살을 도리는 듯한 혹한에 아침마다 윤기섭 교감이 초모자를 쓰고 홑옷 입고 나와서 점검하고 체조를 시키면서도 그 활기찬 목소리에 그 늠름한 기상과 뜨거운 정성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5. 청산리에서 빛을 발하다

1) 일본이 간도를 침략하다

3.1운동은 만주지역 독립운동의 세력 지형도를 새롭게 바꿨다. 바로 독립운동의 르네상스기였다. 물론 일제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독립운동단체는 한일병탄 이후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 인적자원의 수급과 경비 즉 군자금이라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다. 하지만 이들 독립군들은 소규모 부대를 이끌고 정규군인 일본군과 대결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였다. 일제가 1920년 10월 16일 중국 측에 일본군이 10월 17일 자정을 기해 간도에서 군사작전을 실시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독립군들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1920년 10월 2일 새벽 대규모의 마적단과 한인들이 북간도 훈춘 영사분관을 습격했다는 전문이 경원 일본군 수비대에 접수되었다. 이른바 ‘훈춘사건’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는 순간이었다. 3.13운동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북간도지역 한인독립운동 단체에게 훈춘사건은 크나큰 재앙이기도 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일제는 대규모의 병력을 간도에 파견하였다. 일제의 ‘간도출병’은 독립운동의 책원지 가운데 책원지인 간도지역을 쇄토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자 반인류적 행위의 상징처럼 화석화되었다.



그림 5) 청산리항일대첩기념비

2)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과 청산리 전역

1919년 8월 이후 대한군정서가 조직되었을 때 신흥무관학교의 이장녕은 대한군정서 요청에 의하여 참모장이라는 요직을 맡았다. 또한 김좌진은 왕청현 서대파 십리평 일대에 근거지를 설치하고 신흥무관학교 교관 이범석과 졸업생 김춘식, 오상세, 박영희, 백종렬, 강화린, 최해 등을 교관으로 초빙하여 다수의 교재를 공급받아 십리평 부근에 사관연성소를 설립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나 관계자들은 북로군정서에서 핵심직책을 맡았다. 이장녕이 참모장을 맡은 이외에도, 박영희는 대한군정서 사령부 부관 겸 사관연성소 학도대장, 이범석은 연성소 본부 교사와 연성대장을 맡아 대한군정서를 이끌었다. 청산리 전역은 이들에 의해서 승리로 끝나게 된다.

청산리 전역이란 일반적으로 19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길림성 삼도구 청산리와 이도구 일대에서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의군부, 한민회군, 광복단, 의민단, 신민단 등의 무장독립군이 일본군을 맞아 백운평 전투, 완루구 전투, 천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 맹개골 전투, 만기구 전투, 쉬구 전투, 천보산 전투, 고동하 전투를 통하여 일본을 크게 격파한 6일간의 전투를 총칭한다.

6. 독립전쟁을 수행한 신흥무관학교

독립전쟁, 그것은 한국독립운동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이다. 과거의 행위였지만 그것은 오늘날 국외독립운동사적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한국독립운동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보듬어야 할 정신적 자산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자양분이기도 하다.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밝은 미래를 담보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만주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사적지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자산이자 한중 양국이 서로 공존하는 데 필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특히 사적지는 우리 선열들의 미래에 대한 과거의 외침이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울이라는 점을 더욱 되새겨야 할 것이다.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의 암호

이 은 영

성균관대학교 선임연구원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의 암호

이은영/성균관대학교 선임연구원

목차

1. 머리말
2.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한 암호
3. 맺음말

1. 머리말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비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내놓은 이석영(李石榮, 1855~1934)은 본래 이조판서를 지낸 부친 이유승(李裕承)과 모친 동래정씨(東萊鄭氏) 사이에서 6형제 가운데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석영은 1885년 30세의 나이로 이유원(李裕元)에게 양자로 입적하였으며, 양부로부터 평택과 남양주 지역의 땅을 포함해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 후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그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본가의 형제들과 함께 서간도로 망명을 떠났다. 당시 50대 초반이었던 이석영은 망명을 떠날 때 양부로부터 물려받은 평택과 남양주 지역의 드넓은 땅을 처분해서 마련한 목돈을 갖고 갔다. 망명지에 도착한 6형제는 망명지에 독립군을 양성할 학교를 세울 것을 계획했다. 이에 이석영은 자신이 가져간 거액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그 후에도 이석영은 부족한 신흥무관학교 운영을 위해 많은 비용을 냈다. 한 마디로 평택

땅이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자양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석영이 평택 등지의 땅을 매각해서 갖고 간 거금과 나머지 형제들이 각출한 비용을 합쳐서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흥무관학교는 본래 1911년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로 설립되었다. 그 후 중간에 소재지도 옮기고 학교 이름도 대동중학교(大東中學校)·신흥중학교·양성중학교(養成中學校) 등으로 개칭하는 과정을 거쳐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최종 개칭된 후 지속 운영되다가 1920년 폐교되었다.

본 글의 제목은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의 암호라고 거창하게 붙였지만, 기실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어떤 암호를 사용했는지 현재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운영비에 거금을 쾌척한 이석영 형제들이 사용한 암호에 대한 이야기가 이석영 일가 문중에 일부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된 독립군은 2,000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국내는 물론, 중국 등 해외 곳곳에 두루 퍼져 다양한 방면에서 항일 투쟁을 벌였다. 따라서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사용한 암호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석영 일가가 사용했던 암호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사용했을 암호의 면모를 일부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한 암호

1) 형곶 암호

형곶 암호는 마을 입구에 있는 나무에 형곶을 매달아 마을에 일본 헌병이나 경찰이 있는지 없는지를 독립군에게 알려주는 데 사용된 암호이다. 단순 행동으로 보이는 형곶 암호는 민간인과 독립운동가들의 협력으로 만들어낸 암호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현재 충청북도 영동군에는 형곶 암호에 이용된 독립군 나무가 우뚝하게 서 있다.

2) 타벽통보법

타벽통보법은 손으로 벽을 두드려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암호이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 전달하는 암호이다. 기본적으로 주먹을 쥔 손, 손을 편 상태의 손바닥, 손톱 등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활용된다. 타벽통보법은 영어의 알파벳과도 다른 한글의 장점과 소리는 공중으로 흩어지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이 암호는 감옥에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인 간수들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한밤중에 의사소통용으로 활용되었다. 기실 벽뿐만 아니라, 마룻바닥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이석영의 조카이자 이회영(李會英)의 셋째 아들 이규창(李圭昌)은 중국 상해에서 일본 측의 밀정 노릇을 하던 이영로 처단 사건으로 압송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10년 남짓 옥고를 치렀다. 이규창이 수감생활을 하던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은 중국 대륙을 물밀 듯이 쳐들어갔다. 일명 노구교(蘆溝橋) 사건이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의 일본인 간수들은 대다수 항일 투쟁을 벌이다가 수감 된 독립운동가들에게 세계정세가 일본 측에 완전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수감자들은 하루빨리 항일 투쟁을 벌일 생각을 접고, 일제에 협조할 것을 강요하며 노구교 사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에 이규창은 세계정세가 일본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당시 형무소 안에서 인쇄 관련 노역을 하던 자신의 위치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규창은 전쟁의 시작은 동쪽 일본에서 시작되었지만 장기적으로 전쟁의 승리는 서쪽의 서양으로 기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와 전단지 수백 장을 인쇄했다. 그리고 그 포스터와 전단지를 형무소에 처음 들어온 신입 죄수들을 교육시키는 장소에 뿌렸다. 기실 이 일은 이규창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형무소 내 동지들과 함께여서 가능했다. 이때 이규창이 비밀리에 이렇게 큰일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타벽통보법 암호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일이 들통 나서 이규창의 형량은 7개월이나 늘었고, 이로부터 이규창은 장장 3년간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3) 한글 암호

한글 암호는 말 그대로 한글을 활용한 암호이다. 한글 암호는 크게 순전 암호와 응용 암호로 나뉜다.

ㄱ) 순전 암호 : 한글을 아라비아 숫자로 대체하거나 한글을 또 다른 한글로 대체한 암호법이다. 순전 암호는 구식 서신용 암호와 신식 서신용 암호, 최신 서신용 암호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처럼 순전 암호는 수차례 진화하며 많은 변형을 거쳤다.

여기서는 신식 서신용 암호만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한글은 “자음+모음”, 또는 “자음+모음+(받침)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음과 모음을 아라비아로 바꾼 신식 서신용 암호는 받침을 제외한 “자음+모음”에 해당하는 숫자는 나란히 쓰고, 받침의 자음은 “+” 뒤에 써서 수학 공식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다.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언문자음 諺文子音
암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언문모음 諺文母音				
암호	1	2	3	4	5	6	7	8	9	10					

<신식 서신용 암호>

위의 신식 서신용 암호표를 바탕으로 “신흥무관학교”를 수식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710+2, 159+9, 57, 151+2, 151+1, 16”

순전 암호에는 자음과 모음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같은 자음과 모음을 바꾸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는 ①자음을 이용한 자음 동변형 암호, ②모음을 이용한 모음 동변형 암호, ③자음과 모음을 이용한 자모음 동변형 암호가 있다. 자음 동변형 암호는

자음만 같은 자음 중에서 다른 자음으로 표기하고 모음은 그대로 두는 것이다. 모음 동변형 암호는 모음만 같은 모음 중에서 다른 모음으로 표기하고 자음은 그대로 것이고, 자모음 동변형 암호는 자음 동변형 암호와 모음 동변형 암호를 동시에 변형시키는 것이다.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동변용 암호	ㄹ	ㅇ	ㅂ	ㅁ	ㄷ	ㄱ	ㄴ	ㅅ	ㅍ	ㅎ	ㅌ	ㅋ	ㅈ	ㅊ

<자음 동변형 암호>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ㅑ	ㅓ	ㅕ
동변형 암호	ㅓ	ㅕ	ㅗ	ㅑ	ㅓ	ㅕ	ㅏ	ㅑ	ㅓ	ㅕ	ㅏ	ㅑ	ㅓ	ㅕ

<모음 동변형 암호>

ㄴ) 응용 암호 : 한글을 응용한 암호로는 격자법(隔字法)과 통공색자법(通孔索子法)이 있다.

- ① 격자법 : 몇 자씩 건너뛴 글자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암호를 파악하는 것이다.
- ② 통공색자법 : 앞서 뚫어놓은 종이의 뚫린 부분 해당 글자로만 암호를 파악하는 것이다. 통공색자법의 경우,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이 동일한 자리에 구멍을 뚫어놓은 종이를 갖고 있어야 암호 풀이가 가능하다.

4) 수기 암호

수기 암호는 삼각형 모양의 흰색과 붉은색 깃발을 왼손에는 흰색을, 오른손에는 붉은색을 들고 하는 것이다. 깃발을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두

보내는 신호이다. 수기 신호에는 학교에서 한글을 배운 어린이들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어린이들이 동원된 이유는 발각되어도 의심을 덜 받아 빠져나가기가 수월하고, 또 일본 헌병대나 일본군이 추격해도 재빨리 달아날 작은 체구로 쉽게 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항일 유격대에서 수기 암호를 많이 사용했는데, 기실 신흥무관학교 출신 생도들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항일 유격대에서 활약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암호는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암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5) 은어 암호

은어 암호는 특수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서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자신들끼리만 알도록 쓰는 비밀스러운 말을 뜻한다.

상해에 있던 이회영은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새우젓, 골뱅이젓, 조개젓 등 이런저런 젓갈을 잘 꾸려서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하곤 했다. 젓갈 종류는 바로 아내가 고국에서 독립자금을 받기 위해 만나야 할 인물들을 지칭하는 은어였다.

중국 천진의 정실은호를 털기 전 독립운동가 김지강(金之江)은 이회영의 집에 와서 이규창에게 닭다리를 잘 맡아두었다가 누가 와서 달라고 하면 내주라고 하고는 떠났다. 얼마 후 정화암(鄭華巖, 일명 정현섭(鄭賢燮)) 등이 와서 닭다리를 내달라고 해서 이규창이 내주었다. 그들은 닭다리를 찾아다가 일본 조계지에 있는 중일합작 은행인 정실은호를 백주대낮에 유유히 털고 달아났다. 당시 천진 지역 전체에 경계령이 내려졌고,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는 못했다. 닭다리는 다름 아닌 권총을 가리키는 은어였다.

1925년 신흥무관학교를 함께 운영한 인연이 있는 이광(李光, 1879~1966)이 어디서 마련했는지 목돈을 갖고 이회영을 찾아왔다. 어느 날 이회영을 중심으로 이을규(李乙奎)와 이정규(李丁奎) 형제,

백정기(白貞基).정화암.이상일(李相日).이기인(李基寅) 등이 모였다. 이들은 이광이 마련해온 돈으로 타지에서 구입한 권총과 폭탄을 두꺼운 책 속에 감춰서 천진으로 들여오는데 성공했다. 이때 백정기는 큰 가방 하나와 보온통 5개를 이회영에게 전했다. 그러자 이회영은 어린 이규창에게 보온통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고 했다. 가방에는 권총 15자루가, 보온통에는 폭탄이 각각 2개씩 총 10개가 들어 있었다. 보온통은 바로 폭탄의 은어였다. 이 폭탄과 권총들은 훗날 나석주(羅錫疇)가 국내의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을 파괴하기 위해 의거(義舉)를 일으켰을 때 사용되었다.

아래는 일제 문건에서 확인되는 은어 가운데 일부이다.

번호	원어原語	은어隱語(현대어)
1	총독總督	천관天官
2	헌병사령관憲兵司令官	지관地官
3	군수郡守	학鶴
4	군서기郡書記	구鳩(비둘기)
5	헌병대장憲兵隊長	부관父官
6	분대장分隊長	사자獅子
7	분견소장分遣所長	낭狼(이리)
8	헌병졸憲兵卒	대우大牛(큰 소)
9	헌병보憲兵補	소우小牛(송아지)
10	수비대장守備隊長	대호大虎(큰 호랑이)
11	병졸兵卒	소호小虎(새끼 호랑이)
12	내지인순사內地人巡查	대돈大豚(큰 돼지)
13	선인순사鮮人巡查	소돈小豚(새끼 돼지)
14	면장面長	면관面官
15	면서기面書記	기관記官
16	친일파親日派	치雉(꿩)

17	밀정密偵	호狐(여우)
18	권총拳銃	계각鷄脚(닭다리)
19	총銃	독사毒蛇
20	탄彈	서鼠(쥐)
21	폭발탄爆發彈	우박雨薄
22	경찰서장警察署長	토兎(토끼)

6) 노래 암호

노래 암호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노래의 가사를 이용하는 암호이다. 주로 아리랑 등의 민요가 이용되었다. 노래 가사 가운데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일본관동군 토벌대가 그 숫자만큼 추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아리랑 다섯 고개를 넘어간다.”

7) 화학물질 암호

화학물질 암호는 산성물질이 염기성 물질을 만나면 색이 바뀌는 등의 화학 원리를 이용하는 암호법이다. 염기성 용액은 휘발성이 강해서 증발하고 나면 무색이 된다는 이점을 활용한 것이다.

화학물질 암호는 1902년 고종의 지휘 아래 조직된 황제 직속 비밀조직인 “제국익문사” 소속원들이 고종과 암호를 주고받을 때도 사용되었다. 당시에는 언제든지 고종을 만나볼 수 있던 ‘별입시(別入侍)’라는 제도가 있었다. 당시 ‘별입시’ 소속이었던 이회영은 언제든지 고종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부터는 일본 측의 감시와 방해로 고종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다. 이에 이회영은 고종과 비밀리에 소통할 방법으로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화학물질을 이용한 암호였다.

고종은 이회영이 보내온 편지에 촛불의 열을 쪼여 갈색으로 색이 변한 글자를 보고 이회영이 보낸 암호의 내용을 파악했다. 이회영은 고종에게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 평화회의에 보낼 인물로 이상설(李相高), 이위종(李瑋鍾), 이준(李儔)을 화학물질 암호를 통해 비밀리에 추천했고, 최종 고종의 승인을 받아 그들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종이에 식초나 레몬 등 강한 산성용액으로 글자를 쓰면 말라서 전부 휘발이 되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지만, 열을 가하면 글자가 갈색으로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임시정부에서 각 곳의 독립운동가들에게 지령을 내릴 때는 애초에 산성의 성격을 지닌 신문지의 여백에 암호를 써서 보냈다. 그러면 신문을 받아든 독립운동가는 신문의 여백에다 염기성이 강한 소다를 녹인 물을 묻혀서 변화한 붉은색의 글자로 암호 내용을 파악했다.

8) 신표

신표는 뒷날 서로 같은 독립운동가임을 알아보기 위해 주고받은 물건을 의미하는 말이다. 하나의 물건을 쪼개어 나누어 갖고 있다가 어떤 일로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표식으로 갖고 간 신표를 맞춰보는 것이다. 때때로 다양한 물건이 활용되었다.

9) 기타 암호

앞에서 살펴본 암호들 외에도 다양한 암호들이 있지만 미행을 당할 때 등 긴급 상황에 이용한 암호들이 있다. 바로 위급상황임을 알리기 위해 의복 단추 풀기, 달고 있던 뺨지 거꾸로 돌리기, 우산 거꾸로 꽂아놓기, 신발 뒤집어 놓기, 유리창 깨기, 창틀의 화분 돌려놓기 등이 그것이다. 그밖에 다양한 이름과 주소, 별도의 비책(秘冊)과 암호책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3. 맺음말

평택과 남양주 지역의 너른 땅을 팔아서 50대 초반의 나이로 망명을 떠나 신흥무관학교 설립비와 운영 자금으로 거금을 쾌척한 이석영은 동생 이회영이 1919년 활동지를 서간도에서 북경으로 옮겨갈 때도 함께 했고, 이회영이 1930년 상해로 활동지를 옮길 때도 함께 했다. 이러한 이석영은 80대 초반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몸소 독립운동에 투신하지는 못했다.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50대 초반의 체력은 오늘날 70대 초반의 체력 정도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이석영이 직접 독립운동에 투신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가 직접 독립운동에 투신하지 못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이석영은 생전에 그리도 원하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34년 상해 빈민가에서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가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신흥무관학교에서 양성된 독립군들이 이석영 대신 곳곳을 누비며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는 이석영이 직접 독립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의 독립 활동 저변에 평택 땅이 보이지 않게 밀거름이 된 사실을 생각하면 평택 시민들이 가져야 할 자부심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다.

이회영의 활동지 궤적을 같이한 이석영 또한 이회영 주변 인물들이 사용한 암호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어떤 암호를 사용했는지 정확히 확인시켜줄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그들은 감옥에서 사용한 타벽통보법부터 한글 암호, 수기 암호, 은어 암호, 노래 암호, 화학물질 암호, 신표를 비롯해 기타 암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암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실 암호가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지만,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뿐 아니라, 동지들의 안위를 지키는 일로 생각해서 다양한 암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암호는 생각만큼 세련되거나 체계적이지도 못하다. 이 말은 그들이 발각되기 쉬운 초보적 암호를 사용했다는 의미이다. 신흥무관학교 출신, 나아가 암호를 사용하며 활동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이유는 일의 성과 여부를 떠나 독립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완벽하지도 못한 암호를 용감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2020 평택학 시민강좌 자료집

이석영 육형제와 신흥무관학교

발 행 일 | 2020년 12월 11일

발 행 인 | 이보선(평택문화원장)

기 획 | 황수근, 강하늘

저 자 | 2020 평택학 시민강좌 강사 공저

발 행 처 | 평택문화원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 화 | 031-655-2002

팩시밀리 | 031-654-8807

저 작 권 | 평택문화원

비매품/무료



ISBN 978-89-93983-53-1

※ 이 책의 저작권은 평택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자료집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